

## 성인 일차성 사구체질환의 임상상 및 병리학적 분석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계명대학교 신장연구소 내과학교실<sup>1</sup>, 병리학교실<sup>2</sup>

최 고<sup>1</sup>, 강건우<sup>1</sup>, 박지혜<sup>1</sup>, 황은아<sup>1</sup>, 한승엽<sup>1</sup>, 박성배<sup>1</sup>, 김현철<sup>1</sup>, 최미선<sup>2</sup>

### Clinical and Pathologic Analysis of Primary Glomerular Disease in Adults

Go Choi<sup>1</sup>, Gunwoo Kang<sup>1</sup>, Jiehae Park<sup>1</sup>, Eunah Hwang<sup>1</sup>,  
Seungyeup Han<sup>1</sup>, Sungbae Park<sup>1</sup>, Hyunchul Kim<sup>1</sup>, Misun Choe<sup>2</sup>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Kidney Institut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sup>1</sup>, Department of Pathology<sup>2</sup>

**배 경:** 사구체질환은 당뇨, 고혈압과 함께 말기신부전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성인에서 사구체질환은 연령, 성별 및 인종에 따라 임상 양상 및 병리학적 진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국내의 경우 성인 사구체 질환에 대한 몇몇 보고가 있으나 대상 환자수가 비교적 적거나 이차성 사구체질환을 모두 포함하여, 일차성 사구체질환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연구자들은 일차성 사구체 질환을 가진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진단 당시 임상상, 병리학적 진단 및 예후에 대해 조사하였다.

**방 법:** 197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신생검을 시행한 환자 중 연령이 20세 이상이면서 일차성 사구체질환으로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진단 당시 임상상은 급성 사구체 신염 (AGN), 무증상적 요이상 (AUA), 신기능저하 (RI), 신증후군 (NS),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 (RPGN)으로 분류하였다. 연령군별, 신생검 시기별 (1기: 1978-1990년, 2기: 1991-2000년, 3기: 2001-2010년) 임상상 및 병리학적 진단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결 과:** 대상 기간 중 총 3409예의 환자가 신생검을 받았으며 이들 중 1426예의 환자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들 환자의 평균 연령은  $39.6 \pm 14.2$ 세, 남녀비는 1.26:1, 진단당시 평균동맥압  $94.3 \pm 12.5$  mmHg, 혈청 알부민치  $2.9 \pm 0.9$  g/dL, 총콜레스테롤치  $308.3 \pm 144.8$  mg/dL, 1일 요단백 배설량  $5.7 \pm 5.3$  g, 혈청 크레아티닌치  $1.4 \pm 1.3$  mg/dL였다. 진단 당시 임상상은 NS 833예 (58.4%), AUA 448예 (31.4%), AGN 76예 (5.4%), RI 49예 (3.4%), RPGN 20예 (1.4%) 순이었다. 병리학적 진단으로는 IgA 신증 536예 (37.6%), MCD 353예 (24.8%), MGN 220예 (15.4%), FSGS 173예 (12.0%) 순이었다. 연령대에 따른 임상상은 NS이 20대 58.4%, 30대 49.9%, 40대 53.2%, 50대 63.3%, 60대 이상 79.9%로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NS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 $p=0.001$ ). AUA는 20대 30.4%, 30대 38.6%, 40대 39.0%, 50대 26.6%, 60대 이상 11.8%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 $p=0.001$ ). 연령대에 따른 병리학적 진단은 20-40대에서는 IgA 신증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0대 이상에서는 MGN이 30-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외 MCD 및 FSGS는 전 연령대에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신생검시기에 따른 임상상은 NS의 비율이 1기 90.1%, 2기 67.2%, 3기 38.4%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 $p=0.001$ ), AUA의 비율은 1기 4.5%에서 2기 23.7%, 3기 48.7%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 $p=0.001$ ). 시기에 따른 병리학적 진단은 IgA 신증이 1기 12.6%, 2기 33.5%, 3기 50.7%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 $p<0.001$ ), MCD의 비율은 1기 44.8%, 2기 28.3%, 3기 14.1%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MPGN 또한 1기 7.6%, 2기 2.4%, 3기 2.3%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 $p=0.001$ ). MGN 및 FSGS의 비율은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 론:** 성인의 일차성 사구체질환의 임상상은 전 신증후군의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젊은 연령대에서는 무증상적 요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시기별로는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무증상적 요이상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병리학적 진단으로는 젊은 연령에서는 IgA 신증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고령층에서는 MGN 및 MCD의 비율이 높았으며, 시기적으로는 과거에는 MCD의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IgA 신증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Key Words:** 일차성, 사구체질환, 성인

Primary, Glomerular disease, Adult